

- BIM 연동 통합설계환경에 필수적인 정보화 표준기반 제공을 통해 민간기업의 개발참여 유도
- 건축 관련 법규, 행정 등의 전담 처리/관리부서 신설을 통한 민간사업 지원 대책 수립
- 연구 결과물에 대한 민간기업의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및 상업화 기회 제공
- 설계-엔지니어링 인허가 사전협업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교환 규격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 실무적용을 유도
- 민간단체에 의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스템 보급 활성화

4. 정부연구 지속 활용 및 후속발전방안

- 연구 성과물과 연계한 후속 기술개발을 통해,
 - ① 구축된 시스템의 오픈 **API** 개발을 통한 상용화 유도 및 관련기술개발 촉진
 - ② 건축행정절차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선진화된 건축행정 구축 틀 마련
 - ③ 적용 시설물의 종류 및 설계품질검증 기준을 지속 확대

-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무자 의견 반영 및 기술 개선
- 구축된 시스템의 오픈 API의 개발을 통해 성과물의 상용화 유도 및 관련기술 개발 촉진
- 연구 성과물의 국내 및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제반활동 수행
- 발주자별 표준 템플릿의 지속보급으로 관련업체 활용 유도
- 연구 결과물의 표준화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속발전 유도
- 세움터 탑재 시스템을 국가에서 지속 관리함으로써 관계법령의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응
- 후속 연구를 통해 적용분야를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이외의 분야로 확대 적용
- 후속 연구를 통해 평가대상 품질분야를 에너지와 물량 이외의 분야로 확대

5. 국내 타산업 및 국제 BIM 활동 참여방안

- 연구 성과물의 타산업 연계성 확대를 통해,
 - ① 개방형 **BIM** 데이터 형식의 확대를 통한 센서 및 임베디드 기술 융합 기틀 구축
 - ② 연구 성과를 **GIS**, 도시 인프라 관리, 실내 위치확인 서비스에 확대 적용
- 연구 과정에서의 국제 **BIM**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,
 - ① 개발될 건축 인허가 절차 시스템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해외시장 진출
 - ② 건축행정절차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선진화된 건축행정 구축 틀 마련
 - ③ 해외 유관기관과 시스템 구축사업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의 국제적 표준체계 선도

- 빌딩스마트 국제연맹의 BIM 개발조직 및 전문조직과 협력하여 BIM 원천기술 개발 역량 확보
- 각종 설계/미관 심의에 BIM 설계도서 최적화 기준의 점진적 도입
- BIM 설계도서 인허가 부분을 전기, 구조, 설비, 기계, 조경, 토목 등으로 점진적 확대
- 신축 외 건축물 증축, 개보수 등의 인허가에 BIM 설계도서 최적화 기술 도입
- BIM 설계도서 기술을 지구단위 계획/도시계획/도로계획/소방계획 등에 점진적 확대
- BIM 설계도서 기술을 토목/GIS 기술에 접목하여 국토 유지관리를 위한 초석 마련
- 건축물 인허가 이외의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행정업무 서비스에도 개방형 BIM 설계